

# ASIANA

CULTURE / STYLE / VIEW  
OCTOBER 2013

## Bon Vin Voyage

from Perth to London  
to Aix-en-Provence

monthly in-flight magazine / your complimentary co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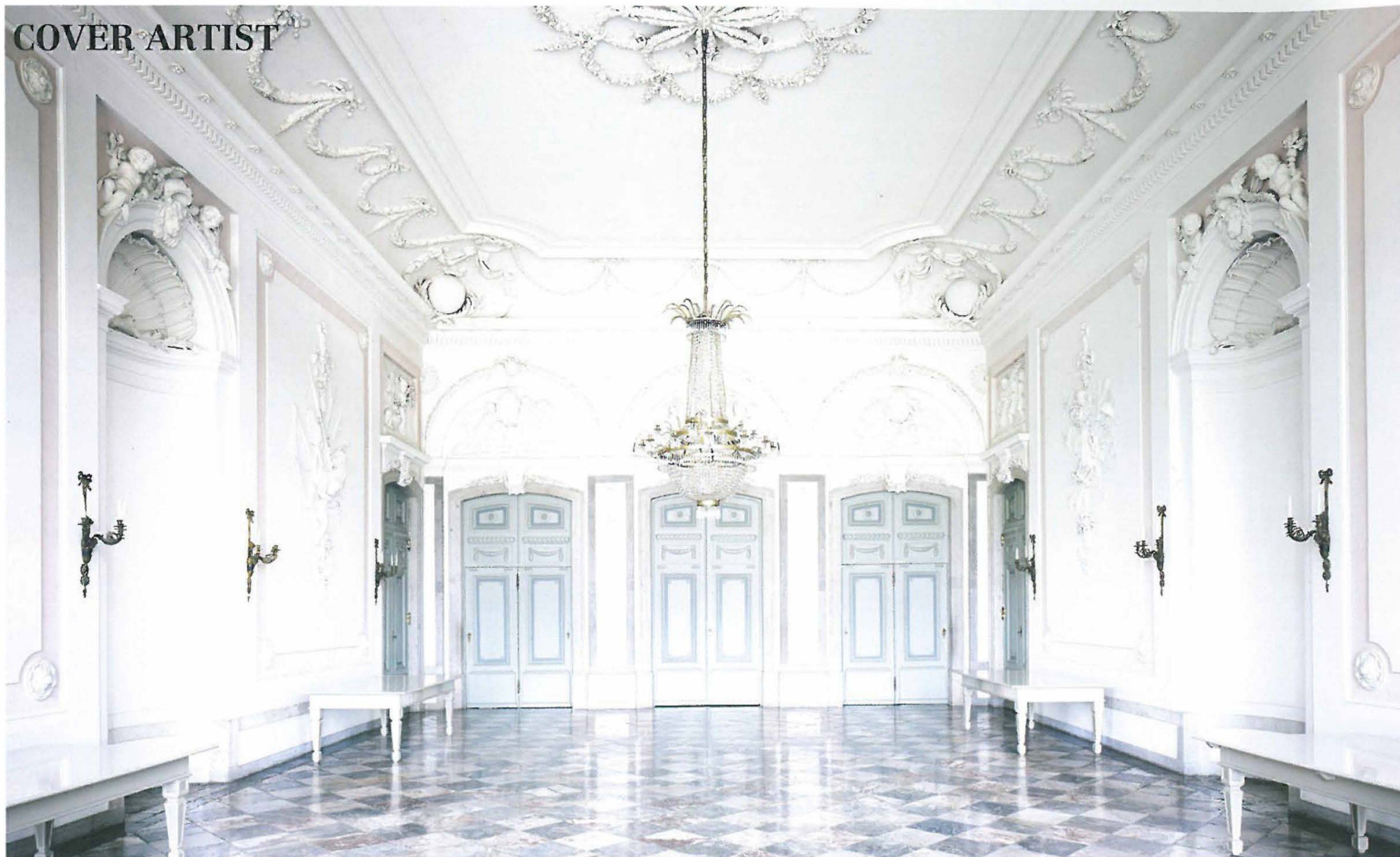
**AIRLINE**  
of  
**THE YEAR**

**Five-Time Winner**  
2012 Business Traveler\*  
2012 Premier Traveler  
2011 Global Traveler  
2010 SKYTRAX  
2009 ATW  
(\*Best Overall Airline in the World)

**ASIANA AIRLINES**

A STAR ALLIANCE MEMBER





# Candida Höfer

German artist Candida Höfer has always focused on public spaces.

Text Han Yeah-joon / Photos Courtesy the Artist & Kukje Gallery, Seoul

*Benrather Schloss  
Düsseldorf IV, 2011,  
180 × 246 cm.*  
A solo exhibition  
of Candida Höfer's  
photographs is  
being held at the  
Museum Kunstpalast,  
Düsseldorf from Sept.  
14 to Feb. 9, 2014.

칸디다 호퍼가 40여 년간  
뒤셀도르프에서 촬영한  
작품만을 모아 소개하는  
전시, '뒤셀도르프'가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  
팔라스트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The opera house, a theater, a palace, a library, an office, a bank, a waiting room... German photographer Candida Höfer has centered her attention on public places that maintain the flavor of different eras. Perhaps this interest comes from the influence of her father, who was a journalist. In her photographs, the intervention of the artist's subjectivity is kept in check while all the abundant and descriptive detail of the building's interior is revealed.

Born in Eberswalde, near Berlin, in 1944, Höfer studied film and photography at the Kunstakademie Düsseldorf from 1973 to 1982. During her student days she became interested in the specific subject of public places, interiors, and rooms. In order to maintain a certain distance from the ob-

ject and view it as precisely and comprehensively as possible, she prefers a full frontal angle. Her images of a tidy interior without clutter are usually printed in a huge format, around two meters long.

A consistent feature of her creations is the absence of any people. But there is a twist in this: A sense of the existence of people (who may have used the space over a long period of time) emerges all the more clearly in these vacant interiors. We sense this presence because the current appearance of the building is itself a residue and reflection of life, created by the patterns and principles of the people who have previously used the space.

"This is not a shot about emotion," said Höfer at the interview with *The Guardian*. "It's about colour, lines, light distribution - and inner balance."





© CANDIDA HÖFER / KUKJE GALLERY, SEOUL



© CANDIDA HÖFER / VG BILD-KUNST, BONN 2013

## 칸디다 회퍼

독일의 아티스트 칸디다 회퍼의 시선은 늘 공공장소에 고정되어 있다.

글 한예준 / 사진 제공 국제갤러리

*Neues Museum  
Berlin IX, 2009,  
183 × 141 cm.*

*Benrather Schloss  
Düsseldorf V, 2011,  
180 × 144.2 cm.*

The artist pays close attention to how spaces are changed by time and objects placed inside them and how they are related with each other.

작가는 공간이 시간과 그곳에 놓인 사물들로 인해 어떻게 변화되고 서로 관계를 맺는지에 주목한다.

극장, 오페라하우스, 궁전, 도서관, 사무실 그리고 은행과 대기실까지, 독일의 사진작가 칸디다 회퍼의 관심은 다양한 시대의 공공장소에 머물러왔다. 저널리스트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일까. 그는 사진에 작가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것을 견제하는 한편, 건축물의 실내에 담긴 묘사적이고 풍부한 디테일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1944년 베를린 근교의 에베르스발데에서 태어난 칸디다 회퍼는 1973년부터 1982년까지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에서 영화와 사진을 공부했다. '공공장소', '인테리어', '방'이라는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은 학생 때부터 시작되었다. 피사체와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가능한 한 폭넓게, 그리고 정확하게 담기 위해 작가는 정면 앵글을 선호한다.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실내의 이미지는 대부분 2m를 넘나드는 커다란 포맷으로 작업된다. 일관된 특징은 '인간의 부재'.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다. 과거에 그 건축물을 짓고 오랜 시간 그 공간을 사용해온 인간의 존재감이

이 비어 있는 실내에서 더욱 또렷하게 인식되는 것이다. 건축물의 현재 모습, 그것은 공간을 사용해온 인간의 질서와 논리가 만들어낸 삶의 축적, 그 자체이므로.

관객은 사진 속에서 건축물과 인간 사이 무언의 교류를 감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막 사람들이 빠져나간 후의 적막 속을 부유하는 아스라한 공기일 수도 있고, 18세기 어느 건축가가 디자인한 예배당 천장의 기하학적 패턴, 혹은 사람의 손을 타서 닳아빠진 어느 도서관 계단의 모서리일 수도 있다.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고, 인공광의 사용을 거의 배제한 채 모든 삶의 흔적을 포용하는 작가의 사진은 어느 건축 사진처럼 드라이하지만 결코 차갑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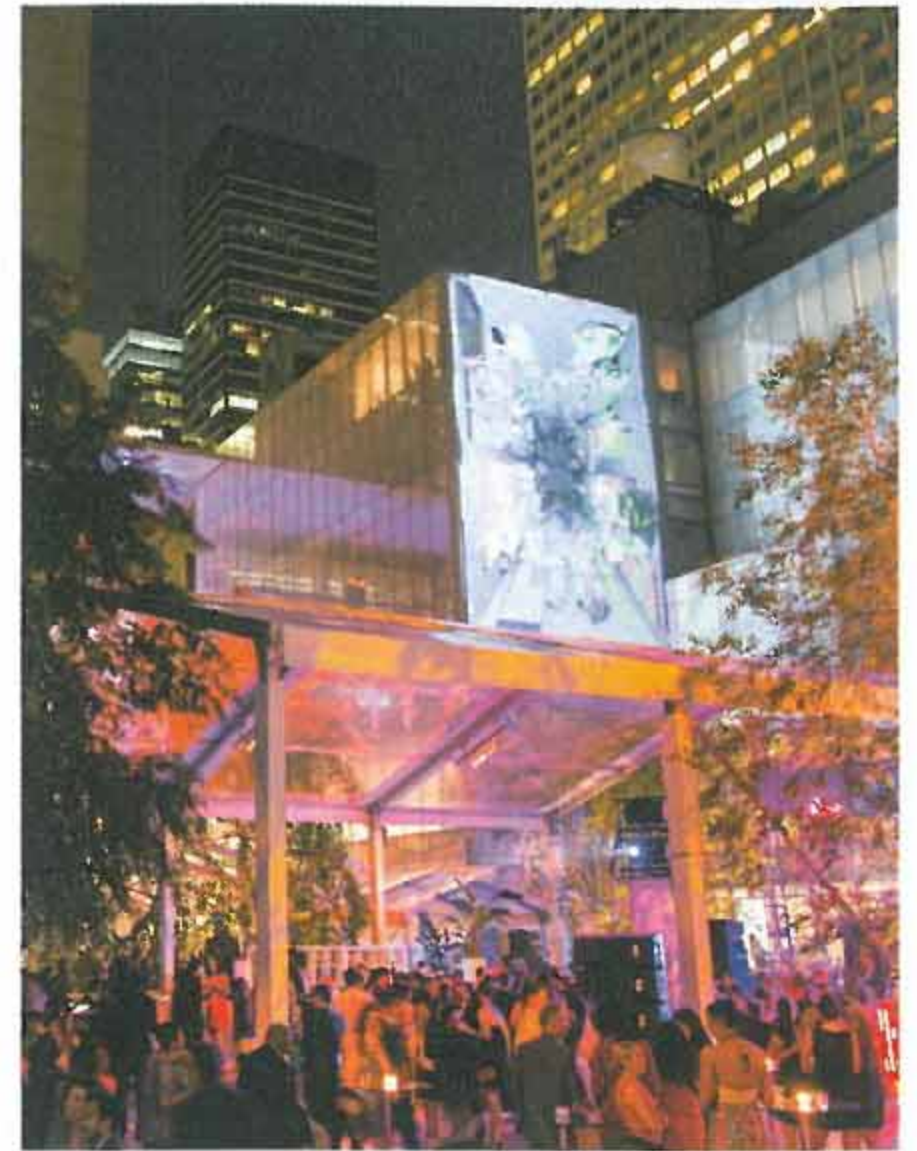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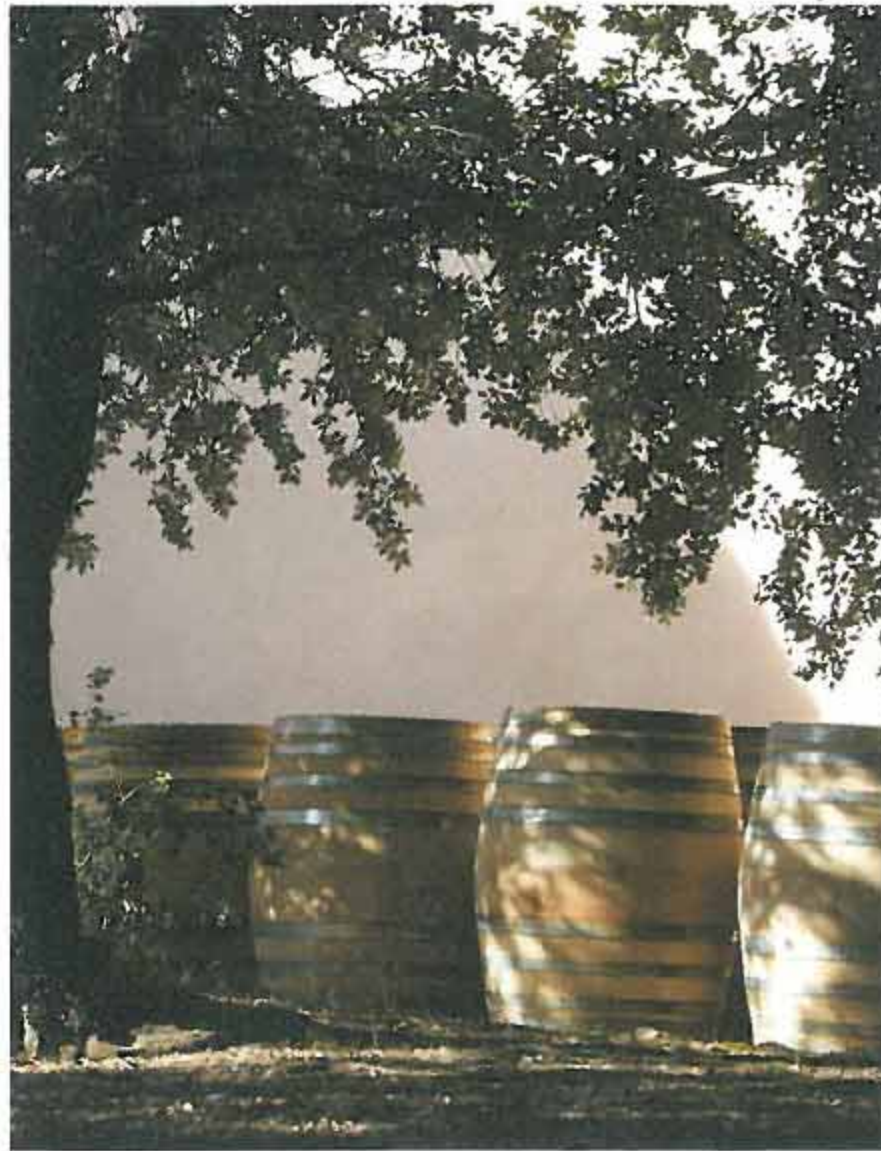
"내 사진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건 컬러, 라인에 대한 것이고, 빛의 분배에 대한 것이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화에 대한 것이에요." 칸디다 회퍼의 개인전이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 팔라스트 미술관에서 9월 14일부터 2014년 2월 9일까지 열린다.





Candida Höfer, *Benrather Schloss Düsseldorf I*, 2011, 180 × 143.4cm.

© CANDIDA HOFER / VG BILD-KUNST, BONN 2013



**ASIANA** CULTURE / STYLE / VIEW

Vol.25 / No.298 / OCTOBER 2013

〈ASIANA〉 디지털 매거진을 아이패드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ASIANA is the official in-flight magazine of Asiana Airlines.

〈ASIANA〉는 아시아나항공의 공식 기내지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탑승 기념으로 드립니다.



**CULTURE**  
inspiring travel

**VIEW**  
what's in & what's out

**17 VOYAGE WITH ASIANA**  
**Wine & Travel**

From southern France, which produces aromatic wines thanks to its climate conditions, to western Australia, where boutique wineries produce 30 percent of Australian premium wines, to a tasting center in London, where visitors can taste and purchase verified wines from around the world.

**서호주, 런던, 남프랑스로 떠나는 와인 여행**  
호주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하는 서호주의 와이너리, 세계 각국의 검증받은 와인을 만날 수 있는 런던, 천혜의 기후 조건으로 깊은 맛의 와인을 생산하는 남프랑스의 와이너리까지 와인 여행을 떠났다.

**32 ANOTHER SCENE**  
**Falling into Fall**

The mountains of Korea are charming, rather than imposing, and reveal the unique beauty of the four seasons. Among them, mountains with colorful fall foliage are truly beautiful.

**가을 산에 물들다**  
한국의 산은 아기자기한 멋이 있고 사계절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울긋불긋 단풍이 물든 가을 산은 참으로 아름답다.

**42 CITY FINDER**  
**Welcome to Museum Nights**

The white walls and ceilings of museums, which once seemed as lofty and remote as their displayed artworks, are now being lit up with multicolored lights and brought to life by electronic music, transforming them into city outlets. You are invited to museum nights, a brighter and richer viewing experience.

**가을밤, 미술관으로의 초대**  
예술 작품만큼이나 높고 아득하게 느껴지던 갤러리의 새하얀 벽과 천장이 색색의 빔 조명과 일렉트로닉 음악으로 채워지며 도심 속 해방구로 변모한다. 낮보다 더 화려한 미술관의 밤으로 당신을 초대한다.

**48 DIFFERENT ANGLE**  
**Dining in Istanbul**

This issue of ASIANA reviews the food culture of Istanbul, the cultural and historic center of the former Byzantine and Ottoman Empires.

**이스탄불 미식 기행**  
건강에도 좋은 웰빙식 터키 음식의 진면모를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의 음식 문화를 주도해왔던 이스탄불에서 만나보자.